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후보 97명 확정...두산·LG 최다

지난해 85명보다 12명 늘어 역대 최다 후보수

9일 KBO(총재 정운찬)는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을 가리기 위한 후보 9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정하고 폭넓은 후보 선발을 위해 해당 포지션의 수비수(지명타자는 지명타자 타석 수)으로 선정 기준을 변경한 지난해 85명보다 12명이 늘어 역대 최다 후보수를 기록했다.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글러브는 투수의 경우 규정타석을 충족하거나 10승 이상, 30세이브 이상, 30홀드 이상 중 한 가지 이상 기준에 해당할 경우 후보로 선정된다.

포수와 야수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경기수×5이닝) 이상 수비로 나선 모든 선수가 후보 명단에 오른다. 지명타자는 규정타석의 3분의 2인 297타석 이상을 지명타자로 타석에 들어서야만 후보에 올랐을 수 있다.

단, KBO 정규시즌 개인 부문별 1위 선수는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해당 기준을 충족한 포지션의 후보로 자동 등록된다.

만약 타이틀홀더가 여러 포지션에 출전해 어느 포지션에서도 수비 이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다 수비수인 포지션의 후보가 된다. 수비수인 포지션의 타석을 비교해야 할 경우에는 각 해당 기준 대비 비율이 높은 포

지션의 후보로 등록된다.

이에 따라 투수 부문 후보는 김광현, 문승원, 박종훈, 산체스, 켈리(이상 SK), 린드블럼, 유희관, 이영하, 이용찬, 후랭코프(이상 두산), 샘슨, 정우람(이상 한화), 브리검, 최원태, 한현희(이상 넥센), 양현종, 헨터(이상 KIA), 보니아, 아델만(이상 삼성), 김원중, 레일리, 오현택(이상 롯데), 소사, 윌슨, 임찬규, 차우찬(이상 LG), 금민철, 니퍼트, 피어밴드(이상 KT), 베넷, 이재화(이상 NC) 등 지난해보다 5명 늘어난 31명이 선정됐다.

포수 부문에는 SK 이재원, 두산 양의지, 한화 최재훈, KIA 김민식, 삼성 강민호, LG 유강남, KT 장성우 등 7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며, 두산 최주환과 KIA 나지완, 롯데 이대호, LG 박용택 등 4명은 지명타자 골든글러브 수상을 노린다.

1루수 부문에는 SK 로맥, 두산 오재일, 넥센 박병호, KIA 김주찬, 삼성 러프, KT 윤석민, NC 스크스 등 7명이 기준을 충족했고, 2루수 부문은 두산 오재원, 넥센 김혜성, KIA 안치홍, 롯데 반즈, LG 정주현, KT 박경수, NC 박민우 등 7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3루수 부문은 SK 최정, 두산 허경민, 한화 송광민, 넥센 김민성, KIA 이범호, 삼성 이원석, LG 양석환, KT 황재균 등 8명, 유격수 부문은 두산 김재호, 한화 하주석, 넥센

김하성, KIA 김선빈, 삼성 김상수, 롯데 문규현, LG 오지환, KT 심우준 등 8명이 경쟁한다.

좌익수와 중견수, 우익수의 구분 없이 3명이 선정되는 외야수 부문 후보는 노수광, 한동민(이상 SK), 김재환, 박건우(이상 두산), 이용규, 호잉(이상 한화), 이정후, 임병욱(이상 넥센), 버나디나, 이명기, 최형우(이상 KIA), 구자욱, 김현근, 박해민(이상 삼성), 민병현, 손아섭, 전준우(이상 롯데), 김현수, 이천용, 이형종, 채은성(이상 LG), 로하스(KT), 권희동, 김성욱, 나성범(이상 NC) 등 26명이다.

두산과 KIA는 모든 부문에서 후보를 배출했으며, 두산과 LG가 각각 13명이 후보에 올라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골든글러브 선정 투표는 3일 오전 10시부터 7일 오후 5시까지 올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할 취재기자 및 사진기자, 중계방송사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개별 발송되는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투표 페이지에 접속한 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에서 열리며, 10명의 주인공은 시상식 당일 무대 위에서 공개된다. 시상식은 지상파 TV SBS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생중계된다.

뉴스



‘썰딩크’ 박항서의 베트남 10년만에 정상 탈환 노린다

스즈키컵 필리핀 원정 1차전에서 2-1 승리 오는 6일 홈 2차전, 비기기만 해도 결승 진출

‘썰딩크’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2008년 이후 결승에 진출한 적이 없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2일(한국시간) 필리핀 바콜로드의 파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준결승 1차전에서 필리핀을 2-1로 제압했다.

원정 1차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베트남은 결승 진출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6일 안방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우승 문턱에 간다. 지더라도 필리핀에 2골 이상 내주지 않으면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결승에 갈 수 있다. 0-1로 지면

베트남의 결승 진출이 확정된다.

10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베트남은 우승을 차지했던 2008년 이후 결승에 진출한 적이 없다.

조별리그에서 3승1무(승점 10)를 기록, 조 1위로 준결승에 오른 베트남의 집착한 운영이 돋보였다.

1-0으로 앞서다가 필리핀에 1골을 내줘 조별리그 4경기에서 이어온 무실점 행진은 끝났지만 승부를 내는 게 중요한 토너먼트에서 승리를 거둬 의미가 크다.

베트남은 전반 12분 응우옌인득의 헤딩골로 기선을 제압했지만 추가시간에 동점골을 허용했다. 동점을 허용하면서 자칫 분위기가 필리핀 쪽으로 넘어갈 우려가 컸다.

다.

그러나 베트남은 후반 시작 3분 만에 관반득의 골로 균형을 깼다. 관반득이 필리핀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며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서 손쉽게 골을 터뜨렸다.

이후 필리핀의 반격을 무실점으로 잘 막았다. 박 감독은 필리핀 지휘봉을 잡고 있는 세계적인 명장 스벤 에란 에릭손(스웨덴) 감독과의 자존심 대결에서 한 발 앞서갔다. 에릭손 감독은 잉글랜드 대표팀과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등 세계적인 팀을 이끌었던 지도자다.

양 팀의 2차전은 6일 오후 9시 30분 베트남의 홈인 하노이 미이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KBL “전창진 대법원 판결 남아...리그 구성원 아직 부적격”

KBL 재정위원회 KCC 코치 등록 불허



전주 KCC 수석코치로 선임된 전창진 감독이 3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재정위원회에 참석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소명하고 인사하고 있다.

전창진(55) 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의 전주 KCC 코치 등록을 불허한 KBL이 “리그 구성원으로서 아직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KBL은 3일 오전 강남구 논현동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전 감독의 전주 KCC 수석코치 등록에 대해 심의한 결과 코치 등록을 불허하기로 했다. 전 감독은 2015년 5월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그 해 8월 KGC인삼공사 감독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파문이 커지자 KBL 재정위원회는 2015년 9월 24일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15일 주 감독을 경질하고, 스테이시 오그먼 코치 대행 체제로 시즌을 치르고 있는 KCC는 지난해 30일 전 감독의 수석코치 선임을 발표하고 KBL에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승연 KBL 재정위원장은 “법리적 상황을 고려하고 KBL 제반 규정을 기준으로 심층 심의했으며 향후 리그의 안정성과 발전성, 팬들의 기대와 정서도를 고려하며 격론을 벌였다”며 “오랜시간 찬반 격론을 거치며 심의한 결과 등록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를 묻자 조 위원장은 “단순도박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리그 구성원으로는 아직 부적격하다는 것이 재정위의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2015년과 비교해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의조 “아시안컵 활약하면 제안 올 것”

리그 잔류와 유럽 진출의 기로에 선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29)가 거취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일단 내년 1월 열린 아시안컵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황의조는 3일 스포츠조선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시안컵에서 활약한다면 (해외리그에서의 제안)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J리그 2년차를 맞이한 올 시즌 16골을 넣어 득점 3위에

올랐다. 27경기 2097분을 소화한 황의조는 경기당 0.686골의 높은 득점력을 과시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 문제까지 해결했다. 피크 생활 뒤 군 입대를 꺾어려던 기존 계획이 소멸되고 유럽 진출이라는 훨씬 나아진 길이 드러진 셈이다. 리그와 국가대표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황의조는 스카우트들이 물러는 아시안컵에서 다시 한 번 존 재감을 뽐낸 뒤 큰 무대 진출을 노리겠다는 계산이다.



스포츠조선도 일정상 겨울 이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매체는 “유럽리그 이적 시점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아시안컵은 1월 5일 시작해 2월 1일 끝난다”면서 황의조가 내년 여름까지는 감비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칠새마을, 화연사, 설진강, 운조루, 파야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